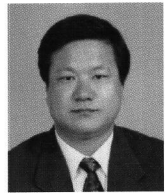




과명 진달래과  
 학명 *Rhododendron micranthum*  
 한명 照山白, 小花杜鹃  
 일명 ほざきつつじ

꼬리  
진달래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86년 식물 수집차 충북 월악산을 오르면서 정태현 선생님의 먹물로 그린 수목도감에서만 보던 꼬리진달래를 처음으로 실물을 보면서 가슴 두근두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IUFRO 행사 시 소나무 기념동산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 숲에서 행사목을 선발하던 중 우연히 꼬리진달래를 발견하고 감격해 했던 나무로 불영계곡의 불영사의 진입로 변에서도 조그만 꼬리진달래가 드문드문 바위틈에서 더딘 자람을 하고 있다.

꼬리진달래는 충북의 제천, 단양, 충주, 강원도에 영월, 경상북도의 봉화, 영주에 분포하는 국가

단위 식물 취약종 119종에 포함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수고 1~2m 정도 자라며 수직적으로는 표고 400~500m의 양지쪽 노출된 암반지역이나 소나무림이나 토양이 발달하지 않은 척악한 곳에 흩어져



자라거나 조그만 집단으로 모여 산다.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되며 내음성이 높아 그늘이나 나무 밑에서 잘 성장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서울지역에서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공해성이 강하다.

원줄기는 뚜렷하지만 많은 가지가 밀생하여 커다란 수관을 형성하며 가지는 한마디에서 2~3개씩 나오고 2년생 가지는 갈색이 돌고 털이 있으며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2.0~3.5cm이나 윗부분에서는 3~4개씩 윤생상으로 달리고 타원형이며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뒷면에 털이 있다. 꽃은 6월부터 7월까지 총상화서에 20개 내외의 꽃이 모여 황백색으로 피며 아침에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 열매는 길이 5~8mm의 긴 타원상 삭과로 9월에 익는다.



상록의 잎은 잔잔하고 조용하며 여름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피는 은백색의 꽃은 보일락 말락 그다지 사치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천박스럽지도 않으나 향내음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끈다. 늘 푸른 관목이어서 큰 나무 아래 집단으로 식재하거나 넓은 잔디밭에 집단으로 식재하여도 무방하고 척박한 토양에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높다.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밀봉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비닐하우스 내에서 삶은 이끼 위에 파종하였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포트에 이식하여 적응시켰다가 보포에 식재한다. 삽목은 녹지삽목을 7월 중순경에 하면 발근이 잘된다.

한방에서는 꼬리진달래의 가지와 잎, 꽃을 조산백(照山白)이라 하여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기관지염, 이질, 산후신체의 동통, 골절을 치료하는데 3~6g을 달여 복용하기도 한다. ㉮

